

2008년 08월 07일 (목) 15:33 [연합뉴스](#)

## '부산문화재단' 기금규모 500억원 확정

대표이사 총괄책임 체제로 내년초 출범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내년 1월 출범예정인 부산문화재단의 기금규모가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부산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되 전문가 출신의 대표이사가 재단운영을 총괄하고 사무처장이 실무 책임을 맡도록 조직이 구성된다.

부산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문화재단 설립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문화재단의 기금 규모를 300억원으로 잡았다가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시 위상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많아 500억원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0억원씩을 출연해 총 5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또 재단의 조직은 부산시장이 이사장을 맡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별도로 뒤 재단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상임직인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또 재단의 운영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는 민간전문가 출신의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팀(2명), 문화사업팀(3명) 체제로 우선 출발한 뒤 2010년에 행사운영팀(2명)과 시설운영팀(2명)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발족 첫해인 내년에 37억5천700만원의 예산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선정.지원, 평가를 비롯해 학예진흥원 업무, 문화예술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부산문화 정체성확립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문화축제 기획 및 집행,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맡는다.

부산시는 9월 중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연말까지 정관작성 및 발기인총회(10월), 인력채용(11월), 사무실 확보 및 재단설립 허가(12월)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세웠다.

lyh9502@yna.co.kr

(끝)

<※마음대로 퍼가고 무료로 즐기는 "연합뉴스 포토 매거진"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실시간 올림픽뉴스는 LGT M-Sports와 함께 \*\*7070+Ez-i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